

걷기 좋은 '시원한 거리'로 탈바꿈

전주시, 객사 옆 '건고 싶은 거리'에 무더위 극복 위한 '쿨링포그' 설치 주변온도를 최대 5도까지 낮춰 시민·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전주객사 옆 걷고 싶은 거리가 여름철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걷기 좋은 시원한 거리로 탈바꿈 된다.

전주시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1억4000여만원을 투입해 전주객사 옆 걷고 싶은 거리에 여름철 폭염 및 무더위 극복을 위한 안개분사형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안개 분사형 쿨링포그 시스템은 수

증모터를 이용해 물을 끌어올려 하늘에서 미세한 노즐 구멍을 통하여 물을 분사해 주변온도를 약 3~5°C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구간은 걷고싶은거리(중앙동 3가 1-9 객사옆거리) 약 60m 구간이다.

시는 쿨링포그 시스템이 설치되면 거리를 시내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청량감을 선사해 무더위 극복을 돕고, 어린이들에게는 색다른 재미까지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걷고싶은거리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남부시장, 복원중인 전라감영, 전주객사(풍패지관)를 지나 영화의 거리와 객사길(객리단길)로 이어지는 주요길목인 만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효철 기자



'천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2일 전주시 정실에서 '2019년 2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 개최하고 일반인 4명과 청소년 2명 등 6명의 으뜸자원봉사자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객사 부근 걷고싶은거리 이외에도 △차이나 거리 △웨딩거리 △영화의 거리 등 이색적인 조경시설물과 경관시설물, 벤치, 조형물 등을 간직한 특색있고 개성 있는 거리를 조성해왔다.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및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외에도 무더위 쉼터운영, 도로 삼수차, 인도 얼음설치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민과 여행객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특화거리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스마트시티 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2일 시청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간부공무원 등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트윈 기반 전주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주제로 한 스마트시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의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사업단'의 핵심 인력들이 참여해 전주시의 현안 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시연하고,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배종욱 LX 국토정보사업장은 "전주시가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시의 모든 부서가 협조해서 시의 행정데이터에 대해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전주시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10월 9~12일 한옥마을 일원서 개최

전주비빔밥축제를 '풍성하게'

축제 조직위, 23일까지 한옥마을 버스킹공연팀 등 모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가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풍성한 축제로 치러진다.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이하 축제조직위)는 다양한 맛과 즐거움을 넘치는 오감만족 음식축제인 '2019전주비빔밥축제'에서 버스킹공연으로 축제장 분위기를 흥겹게 해줄 공연 팀과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음식판매부스 운영자를 각각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음식판매부스의 경우 영업점 음식과 창작음식 두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소의 경우 판매중인 단품 음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롭게 개발한 전주의 창작음식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가 전주시로 된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공연 팀과 음식판매자의 모집기간은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이며, 축제조직위는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이달 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19전주비빔밥축제 홈페이지(www.bibimbapfest.com)에서 내려 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bibimbapfest@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제 조직위(063-231-8969)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뱃살이 쏙~ 건강 다이어트 효과 '톡톡'

전주시보건소,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 시민 호응 얻어 참가 시민 77% 평균 3kg 체중 감량 74% 체지방 감소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운영한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체중과 뱃살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올해 체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성인 비만관리프로그램인 '뱃미인'과 '뱃살탈출' 프로그램을 통해 총 220여명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왔다고 2일 밝혔다.



비만관리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들은 각각 6~8주간 주 2회에 걸쳐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비롯, 영양·운동·행동 조절 등을 제공받았다.

그 결과 올해 비만관리프로그램 참가자 중 77%가 평균 3kg의 체중을 감량했으며, 80%는 평균 4cm의 복부둘레 감소 효과를 거뒀다.

특히 전체 참여자의 74%는 체지방률이 감소해 건강한 다이어트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가 비만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전체의 98%가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보건소는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참가대상을 비만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체력에 맞는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프로그램을 주 2회 실시하고, 체중감량을 위한 맞춤형 칼로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도 도왔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시는 8월 중에도 참가자를 모집해 뱃미인과 뱃살탈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뱃미인은 BMI(체질량지수, kg/m²) 30이상이거나, 체지방률이 남자 30%이상, 여자 40%이상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뱃살탈출은 체지방률이 남자 20%, 여자 28% 이상인 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on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고품질 전주 쌀 생산... 벼짚환원사업 추진

시, 논 862ha 대상 30일까지 신청·접수

논 지력증진을 위한 벼짚환원사업으로 전주지역 농가에서 고품질 쌀이 생산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올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논 862ha를 대상으로 '2019년도 벼짚환원(지력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벼짚환원사업은 화학 비료 사용 등으로 지력이 떨어진 논지에 벼짚을 잘게 잘라 가을갈이를 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올해 전북 도내 논지에 벼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벼짚환원사업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벼짚환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0.1~3ha로, 지원 단가는 1ha당 최대 20만원이다. 벼짚환원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벼짚환원은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증가해 토양 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가을갈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벼짚환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6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청, 청문감사관 간담회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경찰서 청문감사관 15명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청문감사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4주동안 진행한 인사,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차감찰 기간 중 힘써 준 도내 청문감사관들을 격려하고 의무 위반 예방을 포함한 하반기 청문업무에 대한 업무를 공유하여 정의롭고 정감 넘치는 전북경찰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는 전북청장의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청문활동 당부,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 설명,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청문감사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